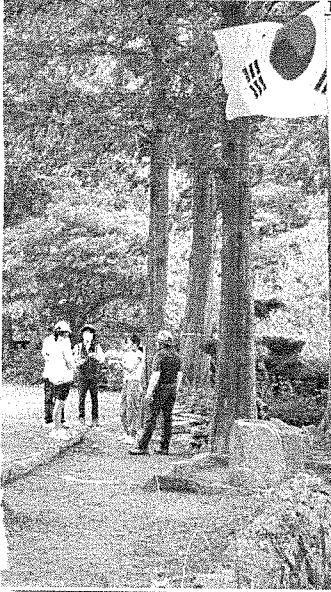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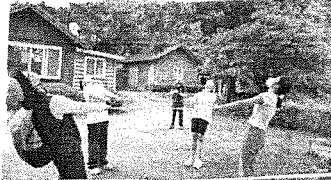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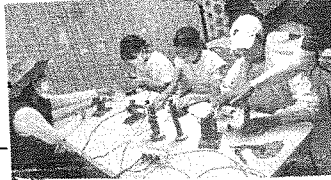



<h2 style="text-align: center;">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h2> <h2 style="text-align: center;">개인활동 결과 보고서</h2>				
신청자	이름	박세은	학번	10510
			핸드폰	
지원분야	<input type="checkbox"/> 인문분야 <input type="checkbox"/> 자연분야 <input type="checkbox"/> 예체능분야 <input type="checkbox"/> 인성분야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과학)			
연수기간	2022년 7월 9일		장소	희리산 자연휴양림, 근산 휴향
활동 내용 및 결과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div> <div style="flex: 1; padding-left: 10px;"> <p>서천에 위치한 희리산 자연휴양림에서 체험을 진행하였다. 그곳에서 서식하는 여러 생물들을 관찰했는데, 바다해 질을 쓴 해송과 멸종위기에 처한 나비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인간이 인간의 기준에서만 사고하는 것이 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비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었다.</p>  </div> </div>			
소감 및 느낀 점	<p>평소에 볼 수 없던 숲 속 생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또한 잘 접하지 않은 향수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p>			



희리산 자연휴향림에서 진행하는 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솔방울과 나뭇가지 등을 가지고 여러 모양을 만들면서 자연물의 특성을 탐구했다. 직접 자연물을 만져 보니 거칠함의 정도나 냄새를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군산에 위치한 혜향에서 천연 향수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집중력 향상 효과가

있는 로즈마리 향이나, 잠이 잘 오는 효과가 있는 라벤더 향 등을 알아 보았다. 향수의 역사 또한 배울 수 있었는데, 성경은 향료가 기록된 최초의 문서라고 한다. 향수를 만들 때는 각각 Top note, Middle note, Base note를 골라야 했다. 향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각지의 취향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각자의 경험, 취향에 따라 어떤 향을 맡았을 때 편안해 하기도 했고, 헛구역질을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화학품을 이용한 정서의 변화를 경험했다. 특히 내가 만든 향수에는 '패츨리'라는 흙 냄새가 나는 허브를 넣어서 맡았을 때 숲 속에 들어간 듯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다른 친구가 만든 향수에는 상큼한 과일 향이 들어가 들뜨는 듯 했다. 이처럼 향을 사용해 정서가 불안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